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정리본_문학

조남희(주간 리트 저자)

목차

1. 들어가며

2. 평가원의 요구

2.1 평가원이 문학 전반에서 요구하는바.

2.2 갈래별 평가원의 요구.

3. 마치며

참고 문헌

1. 들어가며

본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제작한 자료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를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학생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자료는 평가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강사분들의 강의에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녹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에 가볍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자투리 시간에 평가원이 문학에서 요구하는 바를 간단하게 복기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자료는 평가원이 **‘요구하는 방향’**의 학습을 위한 자료로, 실천적 전략(선지 판단 원칙) 등은 따로 다루지 않았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문학 독해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2. 평가원의 요구

2.1 평가원이 문학 전반에서 요구하는바.

문학

문학 능력은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창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 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상상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또한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고전시가·고전소설·고전산문·민속극·현대시·현대소설·현대극·시나리오·수필 등 다양한 문학 갈래의 작품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작품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위의 사진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평가원이 우리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뻘하고 상투적인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평가원의 출제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지금부터 강조된 문장 하나 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 평가원은 문학 영역에서 문학에 대한 '지식'을 '우선적'으로 요구합니다. 즉 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학에 대한 지식인 문학 개념어 + 문학사적 지식에 대한 평가원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사고력) 등을 측정한다.

⇒ 기본적인 문학 지식을 아울러 이를 통해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어휘력은 아래 사진을 참고한다면 문학에서는 일상적 어휘 + 문학 개념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휘·개념

어휘·개념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어휘 사용 능력과 과목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개념의 이해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어휘의 지시적·문맥적·비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문장과 문단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화법, 작문, 언어, 매체, 독서, 문학 영역의 기본 개념도 어휘·개념 영역에서 다룬다.

그리고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사고를 평가원은 측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 일치, 맥락에 의거한 추론, 인물에 대한 비판적 판단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고려한다면 문학에서는 <사실적 + 추론적>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적 이해

사실적 이해는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말이나 글에 담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말이나 글의 조직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이해는 말이나 글에서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내포적(함축적,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 전제나 논거를 추론하는 능력, 전후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 필자의 견해·주장·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위 사진을 참고한다면, 사실적 이해는 요즘 문학의 경향인 극단적 사실 일치 “일단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확한 파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과 관계’, ‘주체와 대상’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현수능 문학 사실 일치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적 이해에서 주되게 요구하는 것들이 선지를 구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 선지 구성 원리를 파악해야 문학에서 객관적인 선지 판단의 틀이 생기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추론적 이해는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 ⇒ 작품의 전체적 정서에 대한 이해>와 <내포적(맥락)을 추론 ⇒ ㉠, ㉡, 볼드, 밑줄 등을 활용하여 특정 부분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평가원은 우리에게 작품에 대한 전체적 정서 정도는 요구하며, 특정 부분에 대한 이해를 물을 시 ‘문맥’에 의거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특정 부분을 물으면 우리는 응당 해당 부분만이 아닌 ‘맥락’에 의거한 판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봅시다.

1. 평가원은 문학 전반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문학 개념어 + 문학사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 수능은 분명 '사고력' 시험이지만, 고교 교육과정 수준의 지식적인 측면이 갖춰졌음을 전제한다. 그런데 국문과 교수님들(비단 국문과가 아니더라도)이 생각하는 고교 교육과정 수준의 지식적 측면의 컷은 교과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에 기준이 꽤나 높다. 즉 지식적인 측면도 본인이 부족하다면 필히 챙겨야 한다.

2.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요구한다.

⇒ 기본적으로 문학 개념어 + 문학사적 지식을 갖춘 상태로 지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파악한 뒤, 그를 바탕으로 **선지에서는 사실적 이해(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와 추론적 이해(주로 문맥에 의거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문학 전반적 지식을 갖춘 상태로 지문에서 핵심적인 정보(갈래마다 핵심적 요소)를 파악한 뒤, 그에 근거하여 선지에서 사실 일치적 판단과 추론적 판단을 진행하는 것을 평가원은 요구합니다. 선지에서 판단 과정은 평가원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출 분석을 통해 터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원의 문학 선지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시간이 된다면 제가 추후 자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원이 요구하는 문학 전반적 지식과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해봅시다.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하기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하기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하기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하기

평가원은 대표적인 문학 작품, 주요 문학 작품 등을 통해 한국 문학의 특징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대표적인 작품들에 담겨 있는 주요 주제(현대 문학이면 성찰적, 물질 만능주의 비판 등), 시대 상황(현대 문학이면 개화기, 전쟁, 산업화 등)을 사전적으로 학습한 것을 전제하여 시험장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원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문학사적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갈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봅시다.

2. 평가원의 요구

2.2 갈래별 평가원의 요구.

▼ 고전시가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 시조 등 고전시가의 다양한 갈래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화자의 형상화 방식에 대해 사전에 학습하고, 이러한 방식의 차이가 작품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 그 의미는 어떻게 이해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문학 교과서 등을 통해 고전시가 작품에서 등장하는 화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러한 화자의 특징이 어떠한 서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지, 작품의 내적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지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평가원은 고전시가에서 다양한 갈래에서 활용되어온 형상화 방식을 ‘사전에’ 학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험장에서 개별적 작품을 ‘맥락’에 의해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평가원은 우리에게 고전시가에서 쓰이는 <빈출 표현 + 주요 주제(자연친화, 연군 지정 등)>를 사전에 학습하고 그것을 개별 작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수험생인 우리들은 이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애초에 ‘사전에’ 학습할 것을 요구했으니까요.

이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제작한 ‘고전시가 핵심 자료 무료 나눔’ 파일이 있습니다.

<https://orbi.kr/00055844854/>

위 링크를 참조하시면 수능 고전시가에서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고전소설

근 4년 간 평가원의 학습 방법 안내에서 고전소설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갈래들에 대한 설명을 참조한다면, 고전소설 역시 ‘고전소설 하위 갈래들에 대한 특성 이해(영웅 소설, 가정 소설, 충신&간신, 처첩 갈등 등)을 바탕으로 낯선 작품에 적용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고전소설 하위 갈래들에 대한 특성 역시 제가 추후 배포하겠습니다.

▼ 현대소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소설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인물상을 폭넓게 학습하고 작품 속 구체적인 맥락에서 인물의 특성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특성과 유형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문학 교과서 등을 통해 서사 갈래의 인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전개 과정에서 확인되는 인물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을 해석하여 인물의 유형과 그 형상화 방식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평가원은 현대소설에서도 다양한 인물상을 ‘학습’하고 그것이 구체적 작품에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갈등’과 ‘인물’의 유형에 대한 ‘사전 학습’을 요구합니다. (소설에서 인물, 사건(그중 갈등)이 중요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평가원은 우리에게 현대소설의 배경 지식(개화기 문학, 전쟁 문학, 산업화 문학)을 사전 학습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맞춰 개별 작품을 시험장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역시 ‘사전에 지식적 측면을 공부’하고 개별 작품을 그에 맞춰 독해할 것을 요구하네요.

▼ 현대시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시의 양식적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구체적인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양상을 이해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문학 교과서 등을 통해 서정 및 서사 갈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정시, 서사시, 이야기시 등 현대시 내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위 갈래들의 양식적 특성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작품에 구현된 양식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역시 현대시에서도 사전적으로 시 하위 갈래들의 특성(서정, 서사 이야기)을 요구하고, 이를 습득한 상태로 다양한 작품을 스스로 파악하는 방향을 요구합니다. 즉 학생들이 미리 현대시에 대한 문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낯선 작품을 많이 겪어보며 스스로 파악하는 방법을 기르란 것이죠.

cf) 예정 사항

현대시와 현대소설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둘 다 ‘현대’ 문학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 측면에서 공통된 부분을 공유합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현대문학 관련 자료도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제가 추후 배포하겠습니다.

3. 마치며

어찌 보면 굉장히 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호하게, 뻔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출제 기관의 오피셜에 근거한 명시적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결국 평가원이 요구하는 바는

사전 학습 : 각 갈래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배경 지식 + 문학 개념어
시험장 : 이를 숙지한 상태로 작품에서 확보할 것에 대한 확보 ⇒ 선지에서 사실 일치 + 추론(정서와 맥락)

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대부분의 강의나 자습서에서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저는 빠른 시일내로, 평가원이 강조했으며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학적 배경 지식'에 대한 자료(현대문학, 고전소설)를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평가원의 오피셜에 근거한 공부를 통해 올 한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본 자료가 문학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잡혀있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주는 용도로 기능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간 리트 저자 조남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